교제와 나눔

**** 선교교회에 처음 나오신 형제 자매들을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

- **오늘은 어린이주일입니다.**
- **교회창립40주년 기념주일예배:** 다음 주일, 연합
- **5월 나라주일:** 5월 21일 주일
- **그리스도승천일:** 5월 18일(목)
- **성령강림주일:** 5월 28일 주일
- **말씀일기 교실 3강:** 오늘 15시 30분, Teestube 소망방
- **라합2 나라모임:** 5월 10일(수) 10시 박희영 님 사업장
- **오래전 교회 사진 등 기록물들을 멀미부에 보내주세요.**
- **여름성경학교** 장소/Jugendherberge Neuss-Uedesheim 일시/6월22일(목)-24일(토)
- **생일축하:** 손하준, 정기승, 전하라, 이근봉, 단주현, 김한진

**** 함께 기도합시다 ****

1)정성 다해 예배드리게 하소서.
2)힘써 모여 교제하고 기도하게 하소서.
3)일상 속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하소서.
4)우크라이나 땅에서 전쟁이 속히 끝나게 하소서.
5)지진으로 고통당하는 이웃들의 아픔을 씻어주소서.

◆말씀일기 일정

일/민23:27-24:9	월/민24:10-25	화/민25:1-18	수/민26:1-51
목/민26:52-65	금/민27:1-11	토/민27:12-23	일/민28:1-15

◆114 운동-하루**(1)** 한번**(1)** 말씀일기 & 성경 **(4)**장 통독
성경 300독 대행진: 208독

◈ 예배위원 안내 ◈

	5월 7일	5월 14일	5월 21일	5월 28일
예배기도	어린이주일	교회창립기념주일	김종권	구봉환
안내위원	예배부			
헌금위원	배진우, 박희영			
애찬위원	밥상 일곱	밥상 여덟	밥상 하나	밥상 둘

40-19호 **2023년 5월 7일**

Presbyterianische
Missionsgemeinde
Dusseldorf e.V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시편 98:1)

주일예배 14:00 Mutterhauskirche
유초등부 14:00 Teestube 평화방
청소년부 14:00 Teestube 믿음방
청년부 모임 15시 30분 Teestube 믿음방

토요기도회: 07:00 Teestube 믿음방
선교성경아카데미(MBA): 누구든 어디서나

담임/ 손교훈 목사 Kyo-Hoon Sohn
☏ 02131-5249 186 HP. 0176-5779 1004
교육/ 이동훈 목사 HP. 01525-2367 629
교육/ 박승은 목사 HP. 0157-3845 5550
선교협력/ 이광열 목사 HP. 0157-7388 7498

1983 년 5 월 8 일 창립

뒤셀도르프선교교회

교회 홈페이지 duemission.de
교회당 주소 Alte-Landstr. 179, 40489 Düsseldorf

어 린 이 주 일 예 배

인도: 이동훈 목사

※입례송/Eingangslied	왕이신 나의 하나님	다 함 께
※예배부름/Eingangsgebet		인 도 자
※찬송/Gemeindelied	10장	다 함 께
※신앙고백/Glaubensbekenntnis		다 함 께
성시교독/Wechselwort	교독문 96번	다 함 께
찬송/Gemeindelied	543장	다 함 께
기도/Gebet		두리, 최재원
찬양/Chor	축복	유 초 등 부
성경봉독/Text zur Predigt	사사기 2:6-10	인 도 자
설교/Predigt	**유산**	이동훈 목사
찬송/Gemeindelied	570장	다 함 께
봉헌/Kollekte		다 함 께
교제/Bekanntmachung		다 함 께
※주기도송/Vaterunser		다 함 께
※축도/Segen		손교훈 목사

※ 표는 일어섭니다.

****교회 구좌****

Ev. Presbyterianische Kirchengemeinde e.V.

Bank: Stadtsparkasse Düsseldorf

IBAN: DE61 3005 0110 1008 4019 01

▶ 손교훈 목사의 말씀일기 민22:21-35 부러움과 두려움 ◀

누군가에게 자신이 복을 빌거나 혹은 저주하는 그대로 현실화되는 신통한 능력을 가졌으면서, 게다가 하나님이 이르시는 대로 말하겠다는 발람이 부럽다. 저주를 부탁하는 발락 일행에게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 하"(13)신다고 하고, "집에 가득한 은 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18)고 단호하게 말하는 발람이 부럽다.

한편, 발람의 모습 속에서 두려움을 지울 수 없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던 것이 실상은 잘못 들은 것일 수 있기에 두렵다. 자신이 유혹에 흔들려 움직이면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길 수도 있으니 말이다.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하시는 20절 말씀과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22절 말씀의 상반성이 나는 그렇게 이해된다. 들음의 능력과 행함의 능력 모두가 선뜻 자신 있는 게 아니니 내겐 두려움이다. 나귀도 보는 것을 보지 못했던 발람이 내 모습일 수 있어 두렵다. 열렸다고 다 입이 아니고 뚫려 있다 해서 다 길이 아닌데, 괜히 내가 타고 가는 나귀-내 상황 혹은 흐르는 내 시간-만 시원찮다고 탓하고 있나 싶어 두렵다.

어느 순간 다시 눈을 뜨게 되어 자기 인생에 걸린 브레이크의 의미를 깨달은 발람이 부럽다: "그 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31). 자기 길이 "사악"(32)한 것을 깨닫고 "내가 범죄하였나이다...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34) 고백하는 발람이 부럽다.

다시 나는 두렵다. 신통한 능력을 소유했어도 가느냐 마느냐 '길 가는 일'에는 결코 신통하다 할 수 없었던 발람을 생각하니 두렵다. 무엇보다도 성경 곳곳에 "백성을 파멸시키는"(발람의 이름 뜻) 거짓 선지자로 발람을 지목하며, 그의 교훈을 주의하라고 권면하고 있으니(민31:16, 계2:14, 벧후2:15-16, 유11) 더욱 두렵다. 발람의 모든 것을 꿰뚫고 그 길을 간섭하시고 그 입술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앞에 조용히 무릎 꿇을 뿐이다. 주여, 저주하러 가는 길은 아예 출발도 말게 하시고, 당신의 뜻을 묻지도 말게 하소서!